

# 무궁화, 멋진 예술작품으로 승화

전주수목원 교육장 전시실서 광복 80주년 기념 '무궁화 작품전시회'

“무궁화 작품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처음 알았어요”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 교육장 전시실이 아름다운 화랑으로 변신했다.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광복 80주년 기념 이영자 소장가 나라사랑 무궁화 작품전시회’에는 대한민국 국화(國花) 무궁화를 주제로 한 여러 작가의 다채로운 예술작품이 전시돼 방문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번 전시를 준비한 주인공은 전주 출신의 이영자(63) 소장가. 그는 지난 10여 년간 전국의 화랑과 고미술품 경매장을 발로 뛰며 무궁화 작품을 한 점 한 점 모아왔다. 수집의 시작은 단순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무궁화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이 소장가는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보니 무궁화 작품이 너무 예쁘더라. 도자기 부채 병풍 가리개 등 여러 많은 작품이 있지만 이번엔 그림 위주로 일부만 가져왔다”고 말했다.

전시 작품에는 국전 초대작가인 소송 김정현 화가, 원광대 미대에서 정년 퇴임한 벽각 유창희 화백의 작품이 함께 걸렸고,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기원하며 한 땀 한 땀 자수로 우리나라 지도를 형상화한 귀중한 작품 2점이 공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시된 20여 점의 작품은 작가마다 서로 다른 기법과 색채로 무궁화의 매력을 담아 내 저마다의 자태를 뽐냈다.

이 소장가는 “우리 국화 무궁화가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광복 80주년 기념 이영자 소장가 나라사랑 무궁화 작품전시회’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 교육장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선조들이 정성껏 남긴 예술 작품을 잘 보존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영자 소장가는 전주에서 운영하는 초록정원사 양성과정과 역량강화과정을 수료하고 초록정원사로 전주 시내 화단 관리를 하며 전주시를 아름답게 꾸꾸는 일을 보람으로 알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간의 봉사활동을 인정받아 전주시장·전라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전주시 ‘천만 그루 정원도시 추진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서신동 부녀회와 각종 봉사단체에서도 꾸준히 봉사하고 있다.

전시를 찾은 한 시민은 “무궁화가 이렇게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게 놀랍다”며 “광복절을 앞두고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8월 15일, 전주수목원에서 열리는 무궁화 작품 전시는 단순한 그림 감상이 아니라 그 속에는 나라를 향한 한 사람의 깊은 사랑과,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에서는 수목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전시장을 대여하여 전시회 개최가 어려운 작가들이나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만호 기자

## 전주시와 함께하는 초가을 영화축제

전주국제영화제 ‘2025 전주씨네투어 with 폴링인전주’ 내달 12~14일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는 오는 9월 12~14일 전주시와 함께 ‘2025 전주씨네투어 with 폴링인전주’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주씨네투어는 2023년부터 전주시 관광거점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대표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전주시의 대표 문화 콘텐츠인 영화와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을 결합해, 영화와 여행이 어우러진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매년 5월 영화제 개막과 함께 시작해 10월까지 이어지며, 전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차별화 된 문화관광 경험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 ‘폴링인전주’는 전주국제영화제와 관광거점도시 전주시가 함께 선보이는 가을 영화 축제, 영화와 관광을 결합해 전주만의 매력적

인 영화 여행을 선사한다.

올해 ‘폴링인전주’는 ‘가을에 다시 만나는 전주국제영화제’, 맛있는 전주, 맛있는 영화’, ‘영화와 음악이 있는 전주’, ‘영화와 함께 전주여행’ 등 4개 핵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시네마부터 가을 여행객까지 폭넓은 관객층을 아우른다.

아울러 9월부터 10월까지 관광거점도시 전주시 곳곳의 야경 명소에서 무료로 열리는 ‘전주씨네투어X산책’도 진행된다.

‘2025 전주씨네투어 with 폴링인전주’의 상세 일정과 예매 정보는 8월 말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https://www.jonjufes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무주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여름캠프 성료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의 여름캠프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무주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캠프는 단원들의 음악 역량 강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진행된 것으로 무주청소년수련관이 주최·주관하고 무주군, 한전KPS,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가 후원했다.

50여 명의 단원들과 지도교사들이 함께한 캠프는 3일간 악기별 합주와 레슨을 중심으로 ‘덕유산국립공원 어사길 생태체험’, ‘적상산 사고지에서의 역사 탐방’ 등 무주지역의 자연 환경과 역사·문화에 대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시간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특 biệt히 12일에는 캠프 하이라이트인, ‘연주회’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단원들의 가족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단원들은 이 자리에서



바이올린, 비올라, 플루트, 트럼본, 트럼펫 등 12가지 악기를 연주하며 실력을 뽐냈다.

한편, 무주청소년수련관(관장 김주형)은 지난 6일 무주양수사업소(소장 김천우)와 인구 감소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1사업소 1대표 사회공헌활동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다담’ 27일 개최

이야기 손님에 도법 스님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27일 오후 7시, 예음헌에서 차와 이야기가 함께하는 국악콘서트 <다담(茶談)>을 개최한다.

8월 이야기 손님에는 도법스님을 초청,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삶과 수행, 공동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한다.

도법스님은 청정불교운동, 귀농학교, 생명평화 탁발순례 등 생명과 평화, 공동체 실천의 길을 걸은 사상가이자 수행자로, 이번 <다담>에서는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명상적 시선과 함께 인생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관객과 나눈다.

‘우리 음악 즐기’에서는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 박원배가 무대에 올라 맑고 고요한 선율이 인상적인 전통 성악 가곡의 선율을 기악화한 대금 독주곡인 <청상곡>을 들려준다.

이번 공연은 50석 규모로 선착순 무료로 진행, 예약은 13일 오전 10시부터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아리랑문화마을 8·15 광복절 기획 ‘우리들의 태극기’ 추진

김제시 아리랑문화마을(이하 문화마을)은 2025년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을 시작으로 태극기의 상징성과 의미 공유를 목적으로 우리들의 태극기 체험·참여·나눔(이하 태극기) 기획을 운영 예정이다. ‘태극기’ 기획은 체험·참여·나눔, 총 3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체험 태극기’는 태극기 색칠하기, 태극기 및 무궁화 바깥가비 만들기 체험으로 광복절 문화마을을 관람객을 중심으로 1일 최대 100명이 참여할 수 있다. 15~17일 총 3일간 일제수탈관 로비에서 무료로 운영되며 재료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두 번째 ‘참여 태극기’는 자신이 경험했거나 SNS에 공유되는 재미있고 봉글한 태극기 관련

이야기를 메모지에 손글씨 작성 후 일제수탈관 로비에 전시 공유하는 기획이다.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1개월간 일제수탈관 로비에서 진행된다.

세 번째 ‘나눔 우리들의 태극기’는 전시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하여 이재명 대통령 취임선서 시 패용했던 진관사 태극기(보물 1661호) 배지를 나누고 추첨된 이야기 중 3~4개는 김제시 공식 SNS 업로드해 태극기의 의미를 공유하는 기획이다. 당첨자 발표는 9월 24일 예정이다.

한편, 문화마을은 김제시 죽산면 내촌 외리에 소설 아리랑을 소재로 전시 재현한 역사문화 공간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29일 김제서 ‘국악 콘서트 락(樂)’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한 여름밤 지친 관객들에게 뜻깊은 우리 소리가 들려주는 시원한 선물 ‘국악 콘서트 락(樂)’이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이 무더위에 지친 김제시민을 위해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공연은 국악관현악 ‘남도 아리랑’의 무대를 시작으로 ‘거문고 협주곡’, 국악가요 ‘신사랑가’, ‘별 내려온다’ 등 귀에 익은 곡으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트로트 가수로 대중적인 인기를 달리고 있는 가수 김태연의 ‘인연’ 등 무더위에 지친 김제시민을 위한 다채로운 무대를 준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